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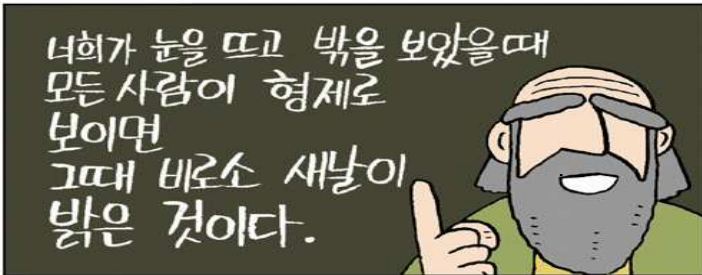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집회 35, 15-17. 20-22-
 [화답송] 시편 34(33), 2-3. 17-18. 19와 23(◎ 7-)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리라.◎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밟을 벗으리라.◎
 [제 2독서] 2티모 4, 6-8. 16-18
 [복음 환호송] 2코린 5, 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루카 18, 9-14

성가	8시 미사	입당 49	봉헌 210 510	성체 178 164	파견 271
	11시 미사	입당 49	봉헌 210 510	성체 178 164	파견 27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30주일(10월 27일)		연중 제 31주일(11월 3일)		연중 제 32주일(11월 10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김글라라(순희)	이엘리사벳(자영)	이바로로(명국)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이바로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나의 기도는 과연?

지난 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해서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 낸 과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바리사이의 교만한 기도와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18, 14)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제1독서에서도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집회 35,20-21)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 바리사이는 “꽃꽂이 서서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라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공로를 늘어놓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마음속이 교만으로 가득차서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바리사이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사이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리처럼 단지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겸손한 기도를 바치고 겸손한 생활을 실천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어느 겨울날 한 추기경님이 로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추기경님은 노인의 모습이 측은하여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겨울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 예, 추기경님! 저는 건축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배울 것이 아직도 많은데 저에게 시간이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한 노인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자신만이 최고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발전을 막고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느님과도 관계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원인 중 하나로 ‘교만’ 을 꼽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거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겸손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 미약함이 우리의 현실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고통과 힘든 현실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며 남의 이목이나 가치 판단 따위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유일한 안내자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인내심을 길러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여유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사이와 공적 죄인으로 멸시당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삶에서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산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입에 하느님의 기도를 담기도 죄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단언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사이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는 남들의 결정이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방합니다. 자신은 다른 이

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교만스런 자기 자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업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자비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살고 살아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가난한 이, 차별당하는 이
소외받은 이들한테서
당신의 부르심을 알아듣게 하소서

글_베른하르트 헤겔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말과 생각과 행위의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손꼽히는 성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하나의 몸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三位一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신비를 밝히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을 산책하다가 한 어린이가 모랫구멍에서 조개껍데기로 물을 푸는 모습을 보고 성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 묻자 어린이는 ‘바닷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뭘 하려 하는데.’ 하고 다시 묻자 어린이는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바다를 텅 비게 하려고요.’

어린이의 대답에서 성인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것은 조개껍데기로 물을 퍼서 바다를 비우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의 말씀처럼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창세 1,26.27)

하나님께서서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당신의 모습’ 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요한 1,1)라는 요한의 증언처럼 전능하신 ‘말씀’ 으로서의 하나님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요한1,14)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행동’ 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다.” (요한 16,13)라는 성령으로의 ‘생각’ 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 성삼위(聖三位)이시라면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 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처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을 때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된 완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살인,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파괴 등 각종 범죄로 얼룩지게 되었으며 일치되었던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점점 분열되고 유리되어 참인간으로서 원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 5,48)라고 분명히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필립 3,1314)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오로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질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필립 3,12)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신 목적은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달음질치게 하려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말씀(言)’ 능력과 예수님으로서의 ‘행동(行)’ 능력과 성령으로서의 ‘생각(知)’ 능력 즉, 「지언행(知言行)」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렌즈로 햇빛을 모아 초점(焦點)을 맞추면 불꽃이 일어나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분열된 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오직 ‘사랑’ 의 초점으로 집중되어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의 말이 곧 저의 생각이며, 저의 생각이 곧 저의 행동이며, 저의 행동이 저의 말임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고 최인호 베드로/작가

머무름

가정들 사이의 연대성을
특히 의미심장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거나
심각한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기꺼이 입양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최칙 93항

가톨릭전례

견진성사

1) 성령 강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나약한 어린이와 같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알려 주신 참된 진리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진리를 온전히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아직 뜨겁지 못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힘과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도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의 이러한 나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협조자, 곧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견진성사는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리신 성령과 그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세례 때 서약한 새로운 삶을 더 완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2)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관계

견진성사는 성령과 그 은혜를 받는 성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견진성사 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세례성사로써 이미 성령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 습니다. 또한 세례성사 때도 견진성사와 마찬가지로 축성성 유를 이마에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견진성사는 세례 때 이미 받은 성령의 은혜를 자각하고, 성령과 함께 생활 할 수 있게 해 주는 성사입니다.

물이 담긴 컵에 설탕을 넣었을 때 설탕은 바닥에 깔려 있게 됩니다. 단맛을 내기에 충분한 설탕이 물에 첨가되었지만 이 상태에서 물은 그리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물을 저어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게 되면 제대로 된 설탕물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성사 때 받은 은혜를 확고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견진(堅振) 성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 견진성사 예식

① 세례 서약 갱신식

견진성사 전례는 세례 서약 갱신과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여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② 안수

견진성사 때 주교님은 견진 받을 신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신자들에게 성령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세례성사 때는 물로 씻는 예식이 핵심이 되는데, 견진성사에서는 안수 예식이 핵심 부분입니다.**

안수 기도가 끝나면 주교님께서서는 견진 받는 이들의 이마에 축성성유로 십자표를 그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특유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이마에 축성성유로 십자표를 그음으로써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표시(인호)가 새겨집니다. 인호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받게 됩니다. **(인호를 받게 되는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뿐입니다).**

④ 평화의 인사

끝으로 주교님은 견진 받는 신자에게 “평화가 ○○○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고, 신자들은 “또한 주교님과 함께” 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포옹을 합니다.

세례성사를 비롯해서 다른 성사들은 신부님들이 집전하십니다. 그런데 **견진성사는 주교님이 집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교님은 교회의 대표자이십니다. 따라서 주교님으로부터 견진성사를 받고, 주교님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견진을 받는 신자들이 교회 전체와 깊이 결합되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7	200	38	335
헌 금	\$583	\$1,372	\$34	\$1,989

< 교무금 > \$4,338

정창희(10) 정일양(10) 강수영(8-10) 유춘성(4-6)
 유경돈(4-6) 김유한(7-10) 정화봉(1-10) 천종욱(10)
 이경섭(9-10) 신우현(9-10) 김현수(8-10) 박호영(10)
 윤순의(9-10) 장찬호(10-12) 차영화(8-9) 이선희(10)
 이인학(7-9)

< 성소후원금 >

정창희(10) 박호영(10)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양봉남 베드로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10월27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양베드로(봉남)	전안드레아(덕천)
	연 김요한(재복)	김케넷(관용)가정
	연 친정부모님	박데레사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정요한금구	정요한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생 박시몬(상일)	박글라라
	생 서데레사	박세레나
	생 신안나(규련)	10구역 일동
	생 박세레나(동신)	서데레사
	생 최야고보(진우)	이베드로/정안젤라
10월2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1월 1일 금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생 가족들	서데레사
	생 미미 페리	김엘리사벳
11월 2일 토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생 김가브리엘라(애린)	부모

~~~~~ 오늘은 전신자에게 설렁탕이 제공됩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11월 위령성월 묘지미사 안내

일시 : 11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Gate of Heaven

\* 아침미사 있습니다.(성모신심미사) - 꾸리아 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11월 1일(금) 저녁 9시부터 11월 2일(토) 아침 7시까지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사목회의 : 10월 2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ME 모임 : 10월 2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마리아회 : 11월 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메디칼,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1월 3일 8시 미사 후, 교중미사 후 성당

◆ 신앙의 해 신앙상 후보자 추천

- \* 수상 내역 : 미사참례와 신심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기도 및 성사생활에 열심하여 신앙적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한 포상
- \* 후보 추천 : 연말에 올해의 교우상(전교상, 봉사상, 사랑상) 시상이 따로 있으니, 위의 수상 내역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상일 :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
- \* 접수 : 11월 1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10월 구역모임 콜로세서 3-4장**

|       |              |            |
|-------|--------------|------------|
| 5 구역  | 10월27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8-1구역 | 10월27일(일) 5시 | 박일신 바실리오 댁 |

◆ 오늘은 본당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8시미사 후, 교중미사 후 전신자에게 설령탕을 제공합니다.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50을 장학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다음주 11월 3일에는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또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레이더스 홈경기가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 18차 서중부 전체 울뜨레아

주제 : 빨리 일어나라(사도행전 12,7)

장소 : 샌프란시스토 성마이클 성당

일시 : 11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11월 2일 : SAT(II) 한국어 시험